



나눔

희망을 지피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0. 4.

청원자 이야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회문제가 커지자 몇몇 수녀님의 제안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구 공동체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웃 공동체 수녀님도 한 분, 두 분 오셔서 함께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디게 진행되던 작업은 여러 사람의 단합된 힘으로 513개의 마스크를 제작하게 되었고, 여러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마스크를 합하니 대략 1000여 개가 되었습니다. 이 마스크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가난한 나라로 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복음의 ‘빵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묵혀두었던 천 조각(빵조각), 코로나로 고통 받는 이들과 불안에 떠는 이들(굶주리는)을 보며 느끼는 측은한 마음(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마스크 제작(빵의 나눔)이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는 (수천 명을 배부리는 기적),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복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혼자라면 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함께 보다는 혼자가 편했고, 지금도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고, 시도해 보고, 그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공동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





는 이 공동체성에 참여하기 위해 얼마나 나를 내어놓고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제 막 수도생활 입문단계에 서 있는 제가 이 삶 속에서 몸소 겪고, 깨어지고, 깨달아가야 할 부분임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명혜 올리바, 청원자

입회하기 전부터 수녀님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는 fmm이 보편선교에 바쳐진 국제 수도회라는 것입니다. 수녀원에 온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 관구로 파견되어 오신 여러 외국 수녀님들을 만났고 해외에서 선교사로 계셨었거나 지금도 계속 활동 중이신 수녀님들의 생생한 체험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면서도 아직 청원자인 제게는 까마득한 미래의 일처럼 다가와 막연하게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마스크가 떠나면 가나로 날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받아서 사용하게 된다니요. 비록 아프리카에도 가본 적이 없고 그 곳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마치 그분들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은 조금 고되었을지라도 매 순간 기쁘게 웃으며 작업할 수 있었고, 마음을 담아 자신의 시간과 손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공동체 수녀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고 있던 많은 것들이 멈춰진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사랑은 결코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주님의 부활소식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씨앗이 온 세상 곳곳에 꽃 피울 수 있기를 기도로 두 손을 모아 봅니다.

이혜인 소피아, 청원자

찬미예수님! 이번에 약 1주일가량 마스크를 함께 만들면서, 저는 함께 한다는 것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마스크가 그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남을 위해, 그것도 손수 만들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온 공동체가 각자의 시간과 노력을 봉헌하고, 기꺼이 도우려는 그 마음이 1,000개가 넘게 만들어진 결과물 보다 더 크게 와 닿았거든요. (물론 결과물 자체도 무척 뿌듯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나 혼자서는 1개를 만드는 것도 힘들겠지만 과정 안



에서 작은 곳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피곤했지만 무척 즐거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홍정은 마리나, 청원자

I 글나눔

충분히 슬퍼하기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 겨울, 할머니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큰 며느리이신 어머니는 겨울방학 내내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서 간호를 했지만, 할머니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봄,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을 일군 집과 논밭을 처분하고 부산으로 오셨다. 두 분이 반갑기는 했지만, 할머니 댁이 아예 없어졌다는 상실감 때문에 나는 온 몸에 힘이 빠지듯 슬펐다. 세간살이를 다 버리고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내 키만 한 장독을 서너 개 가지고 오셨다. 트럭에서 킁킁거리며 그 장독을 들어 내리던 작은 아버지들, 하루 종일 울어 눈이 퉁퉁 부은 할머니.....

방학이 되어도 더 이상 놀러갈 시골집이 없어졌다. 내 어린 시절 추억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000 번지. 아직도 그 주소를 기억한다. 하루 종일 논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실컷 흙냄새를 맡던 곳, 밤이 되면 귀가 따갑도록 울어대던 개구리 소리, 까만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냇가에서 죽은 새를 발견하고는 우리 형제들만 아는 곳에 묻어주고 십자가를 세워주었지. 종일 놀다 지치면 멍하니 뒷마루에 앉아 앞산을 바라보았다. 썩~ 바람이 지나가면서 뒤뜰 대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양간 소가 콧바람을 내며 되새김질하는 소리를 들곤 했었지. 종이부채로 모기를 쫓으며 귀신이야기에 머리가 쭈뼛거렸고, 자러가기 전엔 손전등을 들고 졸졸이 즐지어 뒷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보니, 전형적인 도회지 아이로 자란 내가 이토록 자연을 좋아하는 것도 모두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 덕분인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그 누군가도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면 좋겠다. 흙과 바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추억을. 그리고 그 추억이 자신의 일부인양 소중하면 좋겠다. 너무나 소중해서, 지금 그 추억이 단지 추억일 뿐이라면, 그 상실을 깊이 애도하기를. 그렇게 충분히 슬퍼해서 그 자연과 아름다움을 다시 찾고 싶기를. 우리가 예전의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지금 내 주변의 자연만큼은 지켜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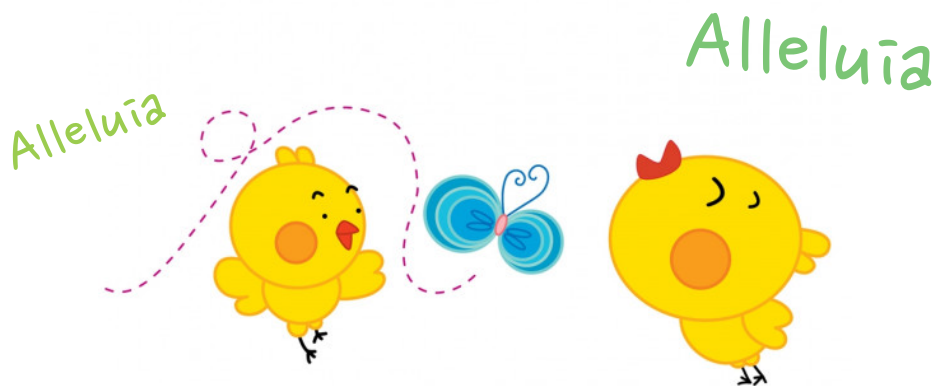
생태학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의 학문”이며, 그러기에 생태운동은 바로 “사랑”에 관한 일이다(*). 내가 사랑하던 것을 되찾고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이나 그 당위성만 강조해서는 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충분히 애도한다면 더 큰 힘을 끌어낼 수 있겠다. 슬픔에서

다시 사랑할 힘을 길어 내는 것. 우리가 충분히 슬퍼해야할 이유다.

이영주 스텔라, fmm

* 이 표현은 필리스 윈들(Phyllis Windle)이 쓴 “슬픔의 생태학 The Ecology of Grief” 이라는 글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차마 드리기 어려운 부활입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교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직접 체험한 사순시기였습니다.
이번 부활은 성당에서 거행하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 일치되는 미사대신
가정에서 온 가족이 정성스럽게 식탁을 꾸미고 식사를 준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며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부활대축일이 되시기를 빌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 베로니카 수녀 드림



성프란치스코수녀회 2019년 후원금 결산서

(1월 - 12월)

수 입		지 출	
전년도 이월금	87,069,048	사무비	11,598,559
후원금수입	411,378,067	법인 사업비	175,968,547
		해외선교지원	25,500,000
		새터민	27,500,000
		이주민	47,707,537
		공부방	39,715,000
		기타사회복지	28,612,850
		양성비	50,074,530
		후원자관리	17,264,190
		이월금	74,505,902
수입합계	498,447,115	지출합계	498,447,115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월1일 ~ 3월31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주)영전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용회 구윤정 구인순
구인순 권순익 권영오 권정희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남기 김동일
김귀선스태파니아 김덕철 김도상김도영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두환(김철형) 김미애자 김민규 김병수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선옥 김성미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수자세실리아 김숙자만나
김순철 김시윤 김시준 김애자 김연 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운 김영주
김영재(허갑수) 김영준 김영희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주
김용자(윤소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유정 김인희 김재욱 김정숙마리아 김정주
김정매(박치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종연 김주경마리아 김주옥
김준연 김준희 김지혜 김진선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옥 김춘자루갈다 김태욱
김춘자안나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호생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유리 노정애 당효준 류순자 명영희 문경희
문성식 문영호 문준식 민정웅 박금난 박노성 박말순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다니엘 박성준 도미니꼬 박성현 박수경 박순옥
박승민 박양순 박연애 박용숙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일영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철제 박태분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박희순 반종현 방진 배수정 배윤숙 배인호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빛소금이티오 삼성동성가정나눔회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석보미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정례 손향기
송비아 송순이 송승운(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승일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오정자 오지연 우복명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ENG 원선주
원세경 유미경 유명춘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세인부동산) 유은정 유춘성 육동배
유혜정헤레나 유희숙프란치스 윤경숙(제일) 윤군자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보미
윤미숙데보라 윤미숙파우스티나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경희 이관훈 이광희 이귀순 이근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선경젼마 이성엽 이성원바오로 이성혜(유주영) 이순희 이연신 이연실 이연재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영혜 이욱자 이용길 이유순 이윤신 이은정 이은주 이은향
이인동 이인숙 로사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필단
이향남 이해일 이현순 이해숙 이홍식 이희량 인용석 인후작은형제 임승옥 임정태
임지원 임진수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순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은미
장현아 재속프란치스코회야음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희 정복순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숙자 정승한 정영숙 정옥희
정재영 정진명 정진숙 정향숙젼마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국제 조근미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석금 조옥희 조재호 조정희 조혜영 조희공 조희무 진숙인 진신아
주)가나스틸 진성자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미라 최선애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 최영애 최욱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최희선 추상식 추수옥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인숙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